

#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 중심으로

손은교<sup>1\*</sup>, 조수민<sup>2</sup>

<sup>1</sup>가톨릭 관동대학교 치위생학과, <sup>2</sup>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Effects of Trait Anxiety on Career Readiness Posture, Career Awareness, Department Satisfaction, Department Recommendation: Dental hygiene and student-centered

Eun Gyo Son<sup>1\*</sup>, Su-Min J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요약** 본연구는 강원도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치과 취업난 방향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함이다. 통계 방법은 SPSS Statistics 24.0,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에 대한 행동과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과 실습 현장에서의 학생에 대한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병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행동 관련 매뉴얼 제공과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특성 불안 해소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 이미지 정서 확립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대상은 사회, 학교, 실습을 담당하는 임상 기관이 되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항목을 넣은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의료계로 나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특성 불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9 to May 4, 2022 on 202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a university in Gangwon-do.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dental employment difficulties by examining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 anxiety caused by COVID-19 on career readiness posture, career perceptio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exploratory factor, confirmatory factor, reliability, path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in SPSS Statistics 24.0 and AMOS 21.0. Trait anxiety had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perception, and career percep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 which indicated a sense of stability for students in the dental practice field is required to establish behaviors and perceptions about career path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anual designed to reassure students anxious about the risks po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to raise dental hygienist expectations regarding future employment in clinical institutions, schools, and dental practices. In addition, a larger scale study is needed on dental hygienist image. Finally, we recommend a characteristic anxiety relief program be devised at the school level that prepares students for employment in the medical field.

**Keywords** : Career Awareness, Career Readiness, Characteristic Anxiety, Department Recommendation, Department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 Gyo Son(Catholic Kwandong Univ.)

email: son1687@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1,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Revised December 14,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3

## 1. 서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의 불안을 조성하여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1]. Spielberger는 상태-특성 불안 이론을 통해 특성 불안을 위험 자극에 대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정서 상태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2]. 이러한 특성 불안은 위험에 대하여 지각하고 자기 보고식 의사 결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경향이 높고, 위험 평가를 비판적으로 하게 만든다[3,4].

불안을 성격적 특징으로 구분한 사람은 Cattell(1966)고, Spielberger(1972)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불안을 특성 불안으로 개념화시켰다[5]. 불안은 막연하게 느끼는 불쾌한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6]. 불안의 측정은 반두라(Albert Bandura), 로터(Julian B. Rotter), 미셸(Walter Mischel) 등이 확립한 '사회인지 이론'을 토대로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7].

이러한 불안은 학생들의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치위생과의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이직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학과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고,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불안 파악이 필요하다[8,9].

2022년 6월 15일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용동향은 15~64세 (OECD 비교 기준) 69.2%로 전년 동월 기준보다 2.3% 상승했고, 이중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7.8%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1년 5월 2,573 천명에서 2022년 5월 2,750 천명으로 6.9%의 증감률을 나타내었다[10].

그러나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시기를 지내오면서 의료 보건 분야의 인력 수급은 치과 업계의 과제가 되었다. 최근 3년간의 치과위생사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9년 84.6%, 2020년 74.1%, 2021년 80.8%로 감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합격률이 저조하다. 이는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발병으로 가장 사회가 흔들렸던 2020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97.3%, 간호사는 96.2%, 치과 기공사는 83.4%라는 합격률과 비교하면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의 여파는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영향 영향을 미쳤다[11]. 코로나가 조금씩 자리를 잡는 2021년에 약간의 반등을 보였으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은 치과의사의 배출에 비해 부족하며[12], 의료기관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증감률(113.3%)에 비해 비의료기관

치과위생사 근무 증감률(174.0%) 및 비활동 치과위생사의 증감률(87.5%)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불안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13].

또한, 2021년 12월 치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치위생과 졸업생은 자발적으로 20~30% 미취업자가 생기고 있고, 치과 의료현장의 실망감으로 인해 다양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치위생(학)과 교수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14]. 이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치과 의료현장의 실망감은 감염병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다[15].

2022년 5월 '치의 신보' 기사에 따르면, 매년 700명선의 학생이 치과 실습 후 자퇴 결심을 하고, 3년간 2,244명이 중도 포기를 하였다. 이는 지금도 어려운 치과위생사 인력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치과 실습에서 직업적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병·의원의 노력과 대학 생활에서의 만족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6].

이처럼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던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면 이탈을 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태 및 진로, 학과 만족도 관련 연구는 치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처음 관문이 국가고시 합격이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특성 불안도 진로에 대한 인식 확립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조 외[17] 연구에서 특성 불안은 단지 시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울과 상태에 대한 불안이 합쳐져 특성 불안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외[18]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과 진로의 미결정은 정적인 상관관계로 진로의 결정을 위해 특성 불안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치위생과 학생들도 특성 불안과 진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직업 가치관 등 개인의 역량 강화는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또한 이러한 진로에 대한 인식 확립 중요한 이유는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구강 보건교육, 예방 치치업무, 진료 협조 및 경영관리 등 전반적인 치과 운영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직 업무 외 봉사 정신, 윤리의식까지 필요한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이다[20].

그러므로 치과 보건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성 불안을 살피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는 진로의 해결방안으로 진로 인식과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21,22].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일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교육 정책의 방향과 치과 취업난 방향의 기초자료 제공을 기대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 전 연구의 취지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본 설문 의 내용에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항을 넣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연구 진행 후 설문 의 내용은 파기함을 알렸다.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이며, 연구 기간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수의 설정은 G\*Power 3.1로 F test 기준으로 Effect size f 0.25,  $\alpha$  err prob 0.05 Power(1- $\beta$  err prob) 0.85, Number of groups 3으로 지정하여 연구 명수가 180명 나왔으며, 총 202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 2.2 연구 도구

Spielberger [2] 개발한 STAI : 성인 상태 불안 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현재까지 불안의 척도 측정 는 Likert식 4점 척도 20개 문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진행하고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점수가 가장 높은 3개의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진로,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 문항은 손 외[16]의 연구 문항을 사용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각 3개씩으로 구성하였다.

###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하여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하였다. 셋째, 경로분석을 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 2.4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 결과

###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년의 구성은 1학년 62명 (30.7%), 2학년 61명 (30.2%), 3학년 79명(39.1%)이다.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80명 (39.6%), 없는 학생이 122명(60.4%) 이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chool Year	First Grade	62	30.7
	The Second Grade	61	30.2
	3rd Grade	79	39.1
	Total	202	100.0
Clinical Practice	Have	80	39.6
	None	122	60.4
	Total	202	100.0

###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등간 척도로 분석한 변인 간의 공통인자를 발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 목적 가설의 가설에 요인을 찾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이론의 문항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요인이 .8이상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를 통하여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 요인의 회전은 베리펙스를 시행하여 회귀변수로

저장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Fig. 1]은 AMOS를 통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Output는 Minimization history, Standardized estimates,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Modification indices를 보았고, Bootstrap는 Perform bootstrap=500, Percentile confidence intervals=95,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95, Bootstrap ML을 확인하였다. 집중 타당도 검증을 위해 표준화  $\lambda$  값이 .5 이상인지를 확인한 결과 .7이상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표준화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균 분산추출(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은 .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는 본 연구 결과 .6 이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개념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값이 .7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8 이상으로 요인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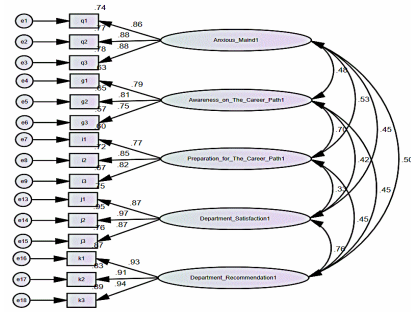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3.3 경로분석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경로 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Fig. 2]. 경로계수의 직접 효과는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estimates)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Output은 Minimization history, Standardized estimates,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Modification indices, Indirect, direct & total effects 값을 확인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Estimates	Estimates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struct reliability	
q1	During the corona period, I was depressed.	.911	.906	.863	.828704	.935535
q2	During the corona period, I was disappointed with myself.	.921		.876		
q3	During the corona period, I think I fell behind my friends.	.922		.881		
g1	I am preparing for the future.	.862	.827	.791	.698561	.868502
g2	I am well aware of the career-related choices I must make.	.869		.808		
g3	I plan how I will achieve my goals.	.855		.753		
i1	I try to unleash my powers.	.856	.851	.772	.757080	.906856
i2	I try to overcome obstacles.	.903		.746		
i3	I try to solve the problem.	.874		.817		
j1	I am satisfied that I entere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913	.926	.869	.875561	.961476
j2	I am satisfied with the classe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968		.975		
j3	I am satisfied with the faculty teaching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918		.874		
k1	I would recomme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my juniors.	.956	.948	.931	.897026	.963498
k2	I would recomme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my family.	.943		.909		
k3	I would recommen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o others.	.957		.941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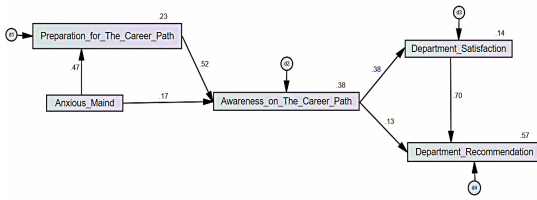


Fig. 2. Path analysis

분석 결과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자세에 직접 영향 (47.4) %를 미치고, 진로 인식에 직접 영향(17.3%), 간접영향(24.5%)를 나타내었다.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직접 영향(51.5%)를 미치고,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에 직접 영향(37.7%), 학과 추천에 직접 효과(12.7%), 간접 영향(26.3%)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 직접 영향을 (69.8%) 나타내었고,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3.4 구조방정식

종속변수들의 인과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변수들의 측정 오차까지 포함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시행하였다.

Table 3. Path analysis

Division	Anxious Maind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Department Satisfaction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474*** (.474, .000)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418* (.173, .245)	.515*** (.515, .000)		
Department Satisfaction	.157 (.000, .157)	.194 (.000, .194)	.377*** (.377,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	.163 (.000, .163)	.201 (.000, .201)	.390* (.127, .263)	.698*** (.698, .000)

\*p < .05; \*\*p < .01; \*\*\*p < .001.

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ivision			Un standardized estimates	Structural error	Critical Ratio	Standardized estimates	p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1	<-	Anxious Maind1	.450	.065	6.884	.532	.000***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1	.534	.085	6.282	.532	.000***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	Anxious Maind1	.217	.061	3.543	.255	.000***
Department Satisfaction1	<-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716	.132	5.437	.608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1	<-	Awareness on The Career Path1	.389	.098	3.956	.313	.000***
Department Recommendation1	<-	Department Satisfaction1	.768	.077	10.037	.727	.000***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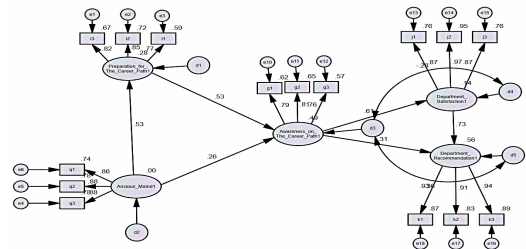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Fig. 3]의 결과는 Chi-square=183.818, Degree of freedom=82, p=.000 이다. 수집된 자료와 연구모델의 적합도를보는 절대 적합지수는 RMR=.041, GFI=.891 이다. 구조방정식 모델과 변수 간의 상관을 설정하지 않고 모델 비교의 정확도를 보는 증분 적합도 지수는 NFI=.927, RFI=.907, IFI=.958, TLI=.946이다. 또한, 지수간의 간명 적합 지수는 AGFI=.840, PNFI=.724로 본 연구의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특성 불안과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은 P=.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 인식과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의 관계도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4].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Division		Anxious Maind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Department Satisfaction	Department Recommendation
Anxious Maind	Pearson	1				
	p (both sides)					
	n	202				
Awareness on The Career Path	Pearson	.418***	1			
	p (both sides)	.000				
	n	202	202			
Preparation for The Career Path	Pearson	.474***	.598***	1		
	p (both sides)	.000	.000			
	n	202	202	202		
Department Satisfaction	Pearson	.418***	.377***	.307***	1	
	p (both sides)	.000	.000	.000		
	n	202	202	202	202	
Department Recommendation	Pearson	.471***	.390***	.407***	.746***	1
	p (both sides)	.000	.000	.000	.000	
	n	202	202	202	202	202

\*  $p < .05$ ; \*\*  $p < .01$ ; \*\*\*  $p < .001$ .

### 3.5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 간의 밀접성(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에 Pearson 상관분석을 보았다. 유의성 검증은 양쪽을 보았고, 통계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았다. 요인들 간의 유의확률이 ( $p < .05$ )미만인 경우를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 = .000$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요인들 간에 연관성이 없고 독립성을 가진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Table 5].

## 4. 고찰

2020년 미국의 치과 의료종사자 8,902명을 대상으로 불안 및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 증상은 2020년 11월 가장 심했고, 이때 치과의사는 17%의 불안을 보였고, 치과위생사는 28%의 불안을 보였다. 또한, 우울증 증상도 치과의사는 10%, 치과위생사는 17%로 나타났고, 불안과 우울증은 코로나19(COVID-19)의 감염의 인지된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건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3].

위 결과를 본다면, 치과위생사의 불안은 치과 실습을 경험한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든다.

대학 생활에서 학과는 고등학교까지의 일률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진로의 관문으

로 개인이 현대 사회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만드는 공간이 된다[24]. 이러한 학과의 선택은 자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선택보다는 학생의 성적에 맞춰진 선택이 많아서 진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양상을 만들고 있다[17].

치위생과 학생들은 국가고시라는 시험의 불안을 겪고 있고, 임상 경험을 통해 특성 불안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1943년 Hull의 추동 이론(drive theory)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Hull의 추동 이론(drive theory)은 박탈 결핍에서 생리적 요구, 심리적 추동,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론을 말하고 있다. 이를 생각해 보면, 학생의 성적과 임상의 진로 경험으로 인한 박탈감은 본인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 불안 해소를 위한 준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25].

본 연구에서도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존 진로 결정 관련 연구도 특성 불안이 진로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즉, 특성 불안이 높아지는 것이 진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특성 불안을 가진 집단에 비수용성 심리이며, 본인이 힘들음을 겪으면서 습관적으로 억제하게 되고 정서를 조절하면서 개인의 역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27]. 즉, 대학생들은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로 진로에 대한 불안이 생기며, 자신 삶의 방향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현상에 갈등을 느끼고, 이는 특성 불안으로 작용한다[15]. 결과적으로 대학

생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 불안을 조절하는 정서를 만들고, 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외[16] 연구에서 특성 불안에 의존적 진로 의사 결정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대학생의 변화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특성 불안이라면, 학과와의 유대감 형성이 정서 안정이 되고, 이는 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하면 진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최 외[28] 연구와 같은 결과이고, 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한 김[2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김[29]은 진로의 선택과 만족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 정서의 안정은 본 연구의 결과처럼 학과 만족도로 이어지고, 나아가 학과 추천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도 결과가 같다[21,30].

앞서 치위생과 학생의 이탈 문제점을 얘기했었다[21]. 본 연구모형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학생이 진로에 대해 인식을 한다면, 학과에 대한 만족과 추천은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식을 하기까지 학생들의 특성 불안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같은 감염병 시대에는 특성 불안이 행동을 억제하게 만든다고 한다[31]. 또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험적 회피가 영향을 미친다[32]. 즉, 진로에 대한 행동과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과 실습 현장에서의 학생에 대한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병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행동 관련 메뉴얼 제공과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문외[33]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긍정 이미지 확립은 진로의 방향과 학과 만족도, 직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진로 인식이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일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시기로 인한 일

개 치위생과 학생의 특성 불안이 진로 준비 자세, 진로 인식, 학과 만족도, 학과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과 치과 취업난 방향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행되었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 불안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준비 자세는 진로 인식에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 인식은 학과 만족도와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과 만족도는 학과 추천에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특성 불안 해소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 이미지 정서 확립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대상은 사회, 학교, 실습을 담당하는 임상 기관이 되겠다. 이러한 불안이 해소된다면, 학생은 학과에 만족하고 학과를 추천하며, 나아가서는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줄어 치과계의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같은 감염병 시기 보건 계열 학과의 임상 실습 관련 교육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임상을 경험하고, 향후 의료계로 나가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특성 불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 불안의 심리 이용을 다룬 연구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항목을 넣은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C. Christian K. I. Luhmann & H. Greg,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Decisions About Delayed Probabilistic Rewards", *Behavior Therapy*, Vol.42, No.3, pp8378-386, Mar. 2011.  
DOI: <https://doi.org/10.1016/j.BETH.2010.09.002>
- [2] C. D. Spielberger, L. M. Ritterband, E. C. Recheiser, T. M. Brunner,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Vol.3, No.2, pp. 209-234, Feb. 2003.  
<https://www.redalyc.org/articulo.oa?id=33730201>
- [3] A. E. Eisenberg, J. Baron, & M. E. P. Seligman,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aversion and anxiety", *Psychol Bull*, Vol.87, pp.245-51. Oct. 1998.

- <https://www.sas.upenn.edu/~baron/papers.htm/amyoId.html>
- [4] J. K. Maner, & N. B. Schmidt, "The role of risk-avoidance in anxiety", *Behavior Therapy*, Vol.37, pp.181-189, Jun. 2006.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05789406000190>
- [5] M. H. Do, W. S. Choi & H. S. Kwak, "A study of Trait - Anxiety and Sociability of primary school children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3, No.1, pp.43-59, Mar. 1988.  
<https://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1944218>
- [6] K. S. Lee, H. W. Bae & D. H. Kim,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in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Anxiety and Mood*, Vol.4, No.2, pp.104-110, Oct. 2008.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825247233694&dbt=NART>
- [7] J. O. Lee, S. J. Kang & C. H. Park, "Validity of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Vol.11, No.2, pp.73-83, Aug. 200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368204>
- [8] E. J. Oh, "Effect of Trait Anxiety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 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2, pp.85-107, Jun. 201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063>
- [9] M. A. Kim, Y.Y.Cho & Y.K.Lee, "A Convergence Study of Subjective Perception of Some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2, pp.115-122, Feb. 202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2.115>
- [10] S.O. Park, May 2022 Employment Trend Report, KOSTAT,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875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8755)
- [11]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National exam pass rate by year [Intrenet].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c2022 [cited 2022 October 29], Available From: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12> (accessed Oct. 29, 2022)
- [12] J.I. Lee, A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dentists and dental management, Healrh Policy Institute, Korea, p.33,34.  
[http://www.hpikda.or.kr/bbs/bbs\\_view.asp?id=56&menuId=pub&pageId=research&search=f1&searchstr=&books\\_name=&books\\_org](http://www.hpikda.or.kr/bbs/bbs_view.asp?id=56&menuId=pub&pageId=research&search=f1&searchstr=&books_name=&books_org)
- [13] Survey on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Number of dental hygienists by type of activity [Intrenet]. Kosis, c2022[cited 2022 November 27],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10\\_T003&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10_T003&conn_path=12) (accessed Oct. 29, 2022)
- [14] Y. H. Kim, Considerations for dental hygienist employment support plan. [Intrenet]. Dental Newspaper. c2021 [cited 2021 December 17],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264> (accessed Oct. 29, 2022)
- [15] E. G. Son & H. Y. Jung, "The Effect of New Infectious Diseases Using Structural Equation onDental Hygienist Image and Employment Recognition: Focused on Online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2, Feb.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2.231>
- [16] S.K. Choi, The future is bleak 2,244 students give up on dental hygiene for 3 year [Intrenet]. Daily Dental. c2022 [ cited 2022 May 18], Available From: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9777> (accessed Oct. 29, 2022)
- [17] S. C. Cho, Y. Jung, K. E. Hong, M. S. Shin & Y. H. Seong, "Relationship Between Test-Anxiety, Depression, Teait Anxiety and State Anxiety",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 Psychiatr*, Vol.12, No.2, pp.225-23, 2001.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136036139840&dbt=NART>
- [18] B. H. Lee, X. Du, E. J. Rhee, S. H. Jang, S. H. Jung & S. M. Lee.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Trai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2, pp.1383-1400, Apr.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2.201304.1383>
- [19] J. H. Ji, S. E. Heo, "The Effects of Work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6, pp.183-193, Jun.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6.183>
- [20] S. Y. Jang, "Study about Voc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Valu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Graduating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5, No.3, pp. 265-271, Jun. 2015.  
DOI: <https://doi.org/10.17135/JDHS.2015.15.3.265>
- [21] E. G. Son & H. Y. Jung, "Exploring digital, career, department satisfaction,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 models using AMO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 2, pp.38-47, Feb.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2.38>
- [22] J. Y. Jung,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and Department Recommendations: Focusing on Middle and Small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Vol. 38, No.1, pp.125-148, 2019.  
DOI: <https://doi.org/10.35222/IHSU.2019.38.1.125>
- [23] A. L. Eldridge, G. C. Estrich, J.R. Gurenlian, A.



- Battrell, A. L. M. Vujicic, R. Morrissey, S. L. Dershewitz, M. L. Geisinger, M.W.B. Araujo, "United States Dental Health Care Workers'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96, No.4, pp. 9-19, Aug. 2022.  
<https://idh.adha.org/CONTENT/96/4/9>
- [24] E. M. Sung & H. S. Choi, "Exploring the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of the highest academic-achievement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2, No. 2, pp.427-452, Jun. 20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117008>
- [25] Psychological Test & Psychological Counseling [Internet]. Introduction to Psychology/Physiological Motivation, c2020 [cited 2020 December 20],  
<https://inferno-1.tistory.com/36> (accessed Oct. 29, 2022)
- [26] C. R. Ham & Y. M. Kim, "Anxiety-Trait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Dance Major Students: Mediated Effects of Dance Mentoring", *Korean Journal of Dance*, Vol.21, No. 3, pp.31-39, Oct. 2021.  
 DOI: <https://doi.org/10.26743/KAOD.2021.21.3.003>
- [27] D. H. Lee, J. H. Lee, H. W. Kwak & M. S. Chang, B. H. Koo, "Emotion Regulation and Trait anxiety : Spontaneous Versus Instructed Use of Emotion Suppression and Reappraisal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1, No. 2, pp.527-548, Jun. 20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148881>
- [28] J. Y. Choi & J. R. Joeng, "The Difference in Career Barriers, Career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in College Students ",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33, No.1, pp.73-96, 2022.  
 DOI: <https://doi.org/10.35283/ERFT.2020.33.1.73>
- [29] Y. H. Kim,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Health-Care Majors and Social Science Majors. *Crisisonomy*, Vol. 9, No. 10, pp.165-182, 20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816539>
- [30] J.Y.Jung & T.S.Jang, "The Influence of College Selection Determinants, Department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Focusing on Students in Departments Related to Airline-Service,"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33, No.2, pp.279-294, 20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693931>
- [31] B. R. Lee & H. K. Suh,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Media Selection in th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on Anxiety and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The L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6, No.1, pp.91-107, 2021.  
 DOI: <https://doi.org/10.17315/KJHP.2021.26.1.006>
- [32] H. B. Kim & S. T.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Experiential Avoidance and Competitive Trait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4, No.4, pp.691-700, 20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188221>
- [33] S. J. Moon, I. Y. Ku, H. Y. Choi & K. H. Ka, "A Study on Enrollment Satisfaction, Career Directions, and Image of Dental Hygienists for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1, pp.564-575,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56>

손 은 교(Eun-Gyo Son)

[정회원]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 경대학원 보건 관리학 (석사)
- 201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

조 수 민(Su-Min Jo)

[정회원]



- 2010년 2월 :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의료경영, 보건